신년대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새 정부 문화정책 - 이병훈 원장·이무용 교수

"문화전당 2015년 광주 U대회 이전에 개관해야"

사회=김미은 문화1부장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이슈는 20년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 조성사업의 기반을 닦았던 이병훈(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종합계획 등에 참여했던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 조성사업과 전당 운영,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담은 지난 2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병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돼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3대 정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차적 사업계획, 종합계획 변경절차 등을 통해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설화·음악·전통문화 등에서 아시아 국가와 네트워크를 조직한 것도 의미있었다. 아쉬운 점은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약화돼 예산 투입에 지장을 받는 등 사업의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직된 조성위원회의 경우 처음으로 외국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모양새만 갖출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당은 2015년 유니버시아드 전까지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가야한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광주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무용=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을 만들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새롭게 오픈하는 등 사업과 연계된 조직 체계가 확충된 점은 성과다. 하지만 현재 작업중인 종합계획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들이 짚어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또 전당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조성사업 전체와 연계해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고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심도시에 부합한 산업지원, 창조적인 콘텐츠와 문화 인프라 확대,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콘텐츠 관련 공약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이다. 그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전당 사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가.

▲이병훈=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숙성된 콘텐츠를 만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4년 완공 예정인 전당은 퐁피두센터보다 2만평이 더 넓은 어마 어마한 공간이다. 이곳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광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을 운영할 조직을 빨리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300여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재부, 행안부 직재 승인과 예산 조치 작업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사람을 뽑아야한다.

250만~300만명을 끌어들이려면 전당의 콘텐츠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춰야하고 개관 콘텐츠와 지속적으로 운영할 콘텐츠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관 콘텐츠는 글로벌한 게 필요하다. 어설픈 짝퉁은 의미가 없다.

▲이무용=전당의 콘텐츠 개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내실있게 운영돼야한다. 글로컬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전당의 제 기능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글로벌과 로컬이 양분화되어 있는듯하다. 특히 국책사업이다 보니 로컬보다는 글로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외부에 너무 많은 시선을 두다 보니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간도 전문가 참여도 더디다. 균형 감각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콘텐츠 가운데 세계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많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18 사료를 비롯해 아리랑, 판소리, 강강술래 등 문화유산과 무등산 주상절리 등 호남지역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전당 안에 어떤 방식으로 든 녹여내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포럼 등과의 협력체계는 미흡해 아쉽다.

-새 정부 문화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무용=새 정부는 지역, 연령, 계층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 기본법을 만들고 문화예산을 현재 1.14%에서 2%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문화정책 공약들은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광주·전남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원, 킬러 콘텐츠 육성, 지역 유휴시설 활용, 복지 강화 등 정책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야할 공약이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다. 세계적인 민주 인권 평화도시, 민주화 상징물 공원화, 교육문화 공간 확대, 인권 관광벨트 등도 지역 공약에 포함됐는데 자연스럽게 5·18 사적지 등을 재생시켜서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월 사적지 기념 사업, 무등산 브랜드 사업 등을 국책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병훈=새 정부가 내놓은 공약이 성과를 내려면 '문화는 민생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문화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정부가 시혜적으로 예산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이다. 민생 차원에서 문화를 봐야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과 조직이 뒤따라 온다.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은 고용창출과도 관련이 있다. 민생 그 자체다. 이런 시범 사업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야한다. 광주는 이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계획'이 세워져 있다. 전당을 개발의 축으로 삼아서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출발했으면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4년 나주로 이전한다. 이 단체들과 광주·전남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할까.

▲이무용=문화부 관련 핵심 기구가 모이게 되는 셈이다. 두 단체를 포함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시 등이 함께 전당의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또 광주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지흥원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성성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전 후에 논의하면 너무 늦다. 현재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광주·전남에서 어떤 문화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이병훈=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양 문화단체가 광주로 이전하는 게 용이하다. 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지역의 자생단체 육성에 역점을 둬야한다.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전남도, 광주시 그리고 지역의 각 단체들이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문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야 할까.

▲이무용=지역문화정책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을 활용하려면 민간주도형 조직 체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광주 5개 구청이 문화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광주시의 문화수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과 연계되면 정책 개발 등에서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시정 전반을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 문화기획제도, 문화리뷰 제도 등을 활용하고 문화 부시장 등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

전남도는 친환경 생태 등 관광 분야에 '문화'를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복마을 등 마을 사업들과 마을기업 등에 문화가 결합되면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병훈=행정이 중요한 이유는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은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돌아가야 한다. 광주 전남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전당이 개관을 하고 250만을 끌어 오려면 전남지역의 문화유적지, 축제 등과 연계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올해 전당이 개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광주시와 전남도가 스터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예향을 내세우지만 조직구성과 예산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화전문가를 영입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문화행정은 공조직이 다 하는 게 아니다. 민간·전문 단체들에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꼭 지켜져야한다. 〈끝〉

/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이 병 훈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
▲고려대 법대 졸업 ▲전남대 행정학 박사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세종시 건설청 주민지원 본부장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역임

이 무 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지리학 박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사 ▲전남대 장소 마케팅 연구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심의·평가 위원

지난 2일 광주일보 대회의실에서 이병훈 아시아문화경제원장(왼쪽)과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을 하고 있다.

병훈 "숙성된 콘텐츠 만들 예산 확보 시급"
무용 "지역 문화 요소 전당 안에 녹여내야"
병훈 "광주시·전남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무용 "문화·관광 결합하면 파급력 극대화"